

쾌적하고 따뜻한 순천, 동계훈련 명소 급부상

지난해 3만여명 다녀가...전남도 전지훈련 유치 우수 시군 선정 전국 지자체 932개소에 홍보물 배포...축구·야구 등 대회 유치

순천시가 지속적인 체육시설 공공인프라 구축으로 최적의 겨울철 전지훈련지로 주목받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겨울철과 지난 7-8월 여름철에 3만1033명의 선수가 순천에서 훈련했다.

이에 따라 순천은 지난 9월 전남도 전지훈련 유치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으며 부상으로 도비 4000만 원이 지원돼 전지훈련을 위한 최적지임을 증명했다.

순천을 찾는 스포츠팀들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우수한 관광자원과 온화한 기후, 쾌적한 스포츠 인프라, 맛갈 남남도 음식, 편리한 교통 여건 등이 우수해서 순천을 훈련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뜻한 기후는 운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스포츠와 관광의 시너지효과가 선

수들과 지원팀의 만족감을 높이는 강점이 됐다.

순천시의 적극적인 선수 유치 노력도 한몫했다.

시는 동계 시즌을 맞아 전지훈련지 홍보물과 동영상 제작해 전국 지자체 932개소에 배포·홍보했으며, 대한체육회 및 전국유소년축구협회 등을 방문해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협조를 부탁했다.

관광객이 다소 줄어드는 내년 1월과 2월에 축구, 야구, 검도, 유도 등 4개 종목에서 대회를 치를 예정이어서 5000여 명이 추가로 순천을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 1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20 순천만국가정원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는 전국 유소년축구클럽 60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시는 '다시 찾는 동계훈련장'으로 이미 지를 높이기 위해 전년도 훈련팀에 대한



전국 스포츠팀의 동계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필마경기장 일대 항공사진.

만족도 조사와 성과분석을 거쳐 전지훈련장 제공, 지역 농특산물 지원,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체력인증 서비스와

관광지 할인 혜택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훈련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0년에도 전국에서 동계훈련단이 시를 찾을 것으로 예

계 있다"며 "시는 전지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3D 공룡세계 추억 만들고 동화나라 화이트가든 만나고

내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별빛축제'

"정원에서 겨울밤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순천만국가정원은 20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39일간 국가정원 서문광장과 습지센터 일대에서 '순천만국가정원 별빛축제'를 개최한다.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별빛축제의 주요 관람 포인트는 공룡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나이트사파리와 별빛으로 물든 국가정원 야간경관, 실내 연출이다.

미디어 아트 '나이트사파리'에서는 '두루미동지에 품어낸 알 중 몇몇이 사라진 줄 알았던 공룡의 알이었다'는 상상 속에서 시작해 나무도감원과 평화정원에서 새로운 공룡 세계가 펼쳐진다.

3D 홀로그램 영상을 통해 보다 생생한 공룡의 모습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크고 작은 공룡들의 이야기를 따라 걷



다보면 마주하게 되는 커다란 공룡 조형물 앞에서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짝이는 조명을 따라 국가정원 서문으로 입장하면 거대한 크리스마스트리가 형형색색으로 관람객을 반기고, 하늘정원까지 관람객의 발걸음을 이끈다.

WWT습지에서는 달빛에 뛰노는 장동여가 이색적이다.

국제습지센터 안에서는 눈이 내린 동화나라에 은 듯한 화이트가든도 만나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주말과 공휴일에는 매직쇼를 관람할 수 있다. 공연이 없는 날에는 매일 2편의 영화도 무료로 상영된다.

겨울의 낭만을 더해준 고구마와 떡볶이 등도 판매 예정이다.

자세한 공연시간과 영화는 국가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순천시 노인 통합돌봄 서비스 '동고동락' 전국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 장관상

순천시의 노인 통합돌봄 '동고동락'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순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에서 선도사업 추진의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

순천시는 5월부터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후 재가 서비스 수행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요양병원 퇴원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 만성 복합질환이 있는 어르신 등 정책모델 대상자 380명을 발굴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의 노인 통합돌봄 '동고동락'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동 지원 사업, 틈새 가사 돌봄사업 등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재가 서비스 제공 등은 지역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을 받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0년에는 케어안심주택 개소와 시민을 돌봄 코디네이터로 양성해 '이웃사촌 돌봄' 등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순천형 통합돌봄 모델 발굴을 위해 2021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해룡면 와온항 '어촌뉴딜300사업' 선정...사업비 142억 확보

3년간 공동 작업장 등 마련 소득향상·경제 활성화 기대

순천시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에 별량면 화포항에 이어 울해 해룡면 와온항 일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국내 300여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룡면 와온항은 연간 500만명이 다녀가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습지와 인접해 있

고 노을 명소와 새꼬막 특산지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곳으로 자연경관, 수산자원 등 풍부한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어촌의 혁신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 인프라와 관광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시는 와온항 주변 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수산물 공동 작업공간 마련과 어항 주변 안전 시설 설치 등 5개 공동사업과 직거래 장터, 어업인종합복지센터, 공동수산물식당, 와온소공원 및 해안도로 경관개선 등 8개의 특화사업을 발굴해 공모 신청한 결과 내년 대상지에 선정됐다.

이번 어촌뉴딜300사업 선정은 어촌 필수 기반시설 확충으로 수산물 생산 및 판

매에 따른 어촌 소득이 증대와 관광 특화 시설 개선을 통해 순천만국가정원 및 습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와온항을 방문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룡면와온항 어촌뉴딜300사업비는 총 142억원으로 (국비 100억, 도비 13억, 시비 29억) 전남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사업비로 2022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별량면 화포항 주변과 더불어 해룡면 와온항이 선정됨에 따라 와온-화포를 잇는 순천만 해양관광 블루벨트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 해양인프라 현대화, 어업인 소득증출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순천시의회, 서울 중구의회 기증 도서 500권 시에 전달

순천시의회의는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의회로부터 전달받은 도서 500권을 순천시에 기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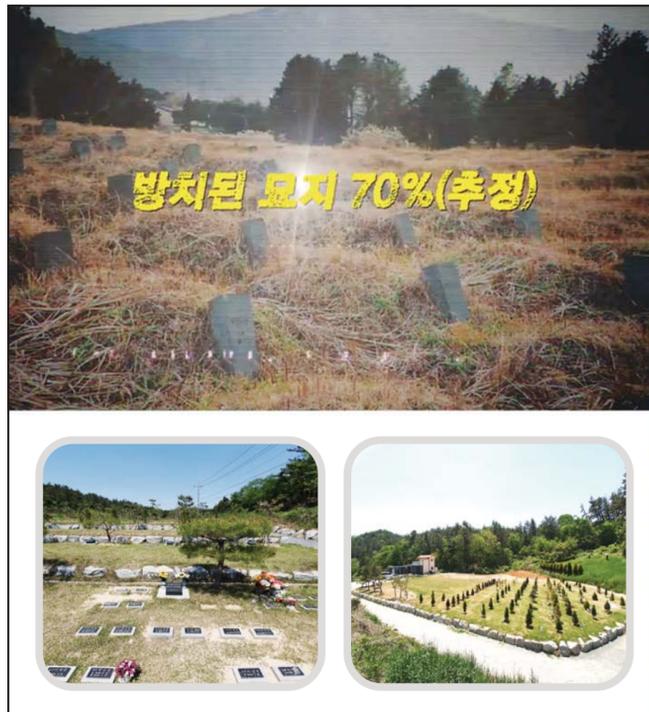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정진 시의회 의장, 허석 순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 전달식을 가졌다.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은 "도서 기증을 통해 순천시의 도서관 활성화와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밀접한 도서관이 지식과 문화, 사람과 사랑을 잇는 소통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순천시와 협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순천시의회가 '2019 순천 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 중구의회를 방문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중구의회의는 지난 9월 순천시의회를 답방해 도서 기증을 약속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